

DJ 추모시집 출간

“그렇습니다. 당신이 당신이라는 한 시대는 위대하였습니다 (중략) 당신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공과 허망은 한 뿌리였습니다/ 영광과 좌절은 같은 뿌리였습니다/ 그 경계에서 당신은 머뭇거리지 않고 몸을 던졌습니다” - 백무산 ‘민주주의여 슬퍼하라! 그리고 우리를 다시 광장에 서게 하라’ 중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한 시인들의 추모시 300여편이 담긴 시집 ‘DJ 추모시집’이 출간되었다. 백무산 시인이 ‘민주주의여 슬퍼하라! 그리고 우리를 다시 광장에 서게 하라’ 중에서 ‘당신은 위대하였습니다’라는 문장을 인용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통해 성공과 허망, 영광과 좌절이 같은 뿌리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시영, 황지우, 이성부, 홍일선, 유영주, 이원규 등 시인 157명이 지난 8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쓴 추모시를 묶어 ‘남이여, 우리들 모두가 하나되게 하소서’를 펴냈다. /김대중기자 bigkim@

DJ 회고 550만원

김대중 전 대통령(DJ) 등 3김의 경쟁이 미술품 경매에서 부활한 가운데 DJ의 작품이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16일 ‘A-옥션’에 따르면 전날 광주 유스퀘어에서 열린 ‘A-옥션 제9회 근·현대 및 고미술품 경매’에서 3김의 회화 작품이 모두 낙찰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산대사 시’는 550만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은 320만원, 김종필 전 총리의 ‘원정망향’은 75만원에 각각 낙찰됐다.

■ 여야 ‘파국’ 부담 컸나... 4대강 예산 절충 시도

“일부 삭감 용의” Vs “협상 용의 있다”

소위구성 금물살 연내처리 가능성

16일 4대강 사업을 놓고 광범한 대치 국면을 형성했던 여야가 적극적인 타협 모색 방침을 밝히면서 연내에 새해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정몽준(MJ) 대표가 전날 여야대표 회담 제안에 이어 이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대표 회담을 수정 제안하고 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 막판 대화 가능성 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대표와 민주당 정세균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급반전’은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민심의 역풍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야당의 계수조정소위 참석을 전제로 “4대강 예산에 불요불급한 계수에 대해 삭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과 싸우기 위한 반대는 안할 것”이라며 “4대강 예산문제는 토론과 협상을 통해 풀 용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협상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화답했다.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이날 수정 제안한 ‘대통령+여야대표 회담’을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는 적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새해 예산안 증액 및 감액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수조정소위 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예산 삭감 내용과 규모 등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한나라당은 17일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삭감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 국면을 고려한다면 내년 예산안 처리는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날치기 처리가 된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결국 타협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만히 있으면 4대강 예산이 전혀 삭감되지 않은 정부 원안이 예정위에서 의결될 것이 뻔한데,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직접 중재안을 내며 여야 의원을 설득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정세균 대표는 즉각 이강래 원내대표와 우윤근 수석부

“중재안 통해 4대강 예산 17% 삭감 아무 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낙연 소신 행보 전망은

민주당 소속의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의 최근 소신 행보가 여의도 정가에서 연일 화제다.

지난 14일 4대강 사업 예산 4천66억원을 처리한 것을 두고 감문을박이 벌어지는 것. 이날 농수산식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4대강 지역 96개 저수지 특농업 사업비 4천66억원의 총액은 유지하되 이중 700억원(17.2%)을 4대강 이외 지역으로 돌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위원장은 “가만히 있으면 4대강 예산이 전혀 삭감되지 않은 정부 원안이 예정위에서 의결될 것이 뻔한데,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직접 중재안을 내며 여야 의원을 설득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정세균 대표는 즉각 이강래 원내대표와 우윤근 수석부

대표 등을 차례로 불러 상황을 알아본 뒤 원내대변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제명’까지 거론하며 분노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어수선해지자 이 위원장은 15일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지연 정책위의장은 16일 “이 위원장이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 신상발언 등을 통해 ‘이강래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보, 지나친 준설은 반대하지만 4대강 살리기 차원에서 호수방지 등은 찬성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700여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가만히 있으면 4대강 예산이 전혀 삭감되지 않은 정부 원안이 예정위에서 의결될 것이 뻔한데,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직접 중재안을 내며 여야 의원을 설득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정세균 대표는 즉각 이강래 원내대표와 우윤근 수석부

“광주 생활하수처리 예산 5천억 반영을”

강운태 의원 예결위서 요구

여야가 ‘4대강 살리기’ 예산 문제와 관련,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벗어나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영산강 살리기의 핵심 사업인 ‘광주시 생활하수처리 사업’ 예산 증액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220억원이 반영된 광주 생활하수처리 사업 예산과 관련,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4천780억원을 증액, 총 5천억원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광주시의 생활하수처리 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영산강 살리기의 핵심인 ‘수질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여기에 강 의원은 영산강 살리기의 전체 예산이 낙동강 살리기 예산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측에 낙동강에 투입되는 예산 일부를 영산강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예산 반영 등을 지렛대로 삼는다면 광주 생활하수처리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 등이 이에 대한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79=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고시학원에 있다! www.hanbitgosi.co.kr. 79=공무원 합격의 특강. 한빛고시학원이다. 한빛고시학원. 79=공무원 합격의 특강. 한빛고시학원이다. 한빛고시학원.

산水土風. 30살부터 60살까지 먹는 도음 건강 음식. 산水土風. 30살부터 60살까지 먹는 도음 건강 음식. 산水土風. 30살부터 60살까지 먹는 도음 건강 음식.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명부오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명부오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